

특 집

양돈장 설사병 피해와 사후 관리요령

설사병 사후 관리 -모든 관리요령

김 현 섭 수의사
선진 브릿지랩

양돈장 경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들에 대해 경제적인 분석을 한다면 많은 경우 혼란에 빠진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의 발생으로 인해 얻게되는 손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다.

바이러스성 설사병과 같이 처음 발생하는 농장의 경우 연간 생산량의 10%정도 피해를 입게되는 질병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현금 흐름에서 적어도 6개월 후에 우리는 커다란 난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양돈산업이 기타 제조업과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생산을 위해 투여된 자본(모돈)이 관리에 따라 변하게 되는 가변자본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즉 관리의 질에 따라 그것의 생산성은 상이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는 축산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함이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우리가 겪는 바이러스성 설사병에 대한 생각도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의 전제는 설사병을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설사병을 경험한 많은 농장과의 대화에서 설사병은 적어도 한번은 경험해야만 하는 역병과 같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의 전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번 고장난 생산 설비를 다시 수리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설사병 발생 이후 그 같은 노력은 농장의 생산성 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설사병 발생 후 모돈에게는 무슨일이 벌어지나?

많은 경우 우리의 관심은 포유자돈이다. 그러나 일단 병이 유입되면 포유자돈에 대한 대책은 없다.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수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권장된다) 필요시 인공감염을 실시한다. 모돈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다음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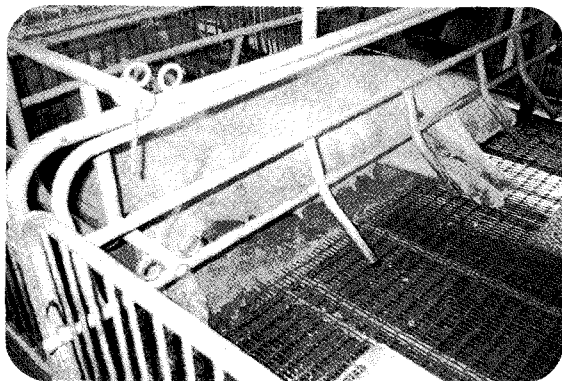
가. 포유모돈의 일부 모돈에서는 사료섭취 저하 또는 거부, 설사, 유방염, 이유 후 발정재귀일이 길어지며, 재발율이 높아진다.

나. 임신모돈의 일부 모돈에서는 사료섭취 저하 또는 거부, 설사, 임신 초기돈에서 유산 또는 재발의 증가(약 30% 이상 나타날 수 있다)

다. 후보돈의 일부 모돈에서는 사료섭취 저하 또는 거부, 설사, 미약 발

정 또는 발정지연
라. 용돈은 개체 수용되므로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은 돈방 일수록 임상 증상은 심해질 수 있으며, 성욕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상재화 되어 있는 농장에



▲설사병 발생 후 포유모돈의 일부 모돈에서는 사료섭취 저하 또는 거부, 설사, 유방염, 이유 후 발정재귀일이 길어지며, 재발율이 높아진다.

서는 후보돈 또는 초산돈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주로 새로이 분만하게 되는 초산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증상은 훨씬 미약할 수 있다.

바이러스성 설사병으로 인한 피해는 농장에 상존하던 다양한 질병이 바이러스증에 이어 나타나는 2차 감염과 변

식성적의 하락(유산, 재발의 증가, 재귀발정일의 지연 등) 그리고 설사병을 경험한 자돈들의 경우 비육성적의 하락과 6개월 후 출하두수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아래는 모돈관리와 생산부분에 한정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임신사에서 바이러스성 설사증으로 인한 증상은 피할 수 없지만 이로인해 나타나는 병원성 장염의 이차 감염은 항생제의 투약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광범위 항생제인 CTC, 또는 OTC, 네오마이신 등을 사료

에 첨가해 상태에 따라 1주에서 2주 동안 투약을 고려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한 경우 OTC제제로 주사치료도 시도한다. 실제 임상에서는 주사치료시 모돈의 증상이 보다 빠르게 개선되나 약품비와 주사치료를 위한 수고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사료급여량은 설사를 하는 기간에 1/3의 수준으로 줄인다.

또한 인공감염을 시도했을 경우 재료가 부족해 설사한

양돈장 설사병 피해와 사후 관리요령

모돈의 분변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모돈에게 기생충으로 인한 여윌과 같은 현상이 향후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는 내부 기생충제를 개체별로 투약하는 것이 권장된다.

둘째, 분만사의 모돈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방염의 증상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임신사에서와 동일하며, OTC와 같은 주사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 발병시기중 사료량을 절반 이하로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다시 사료 섭취를 하기 시작할 때는 사료급이기에 남아있는 사료는 제거하고 신선하고 깨끗한 사료를 급여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설사병이 쓸고 가면 모돈들은 외관상으로 다시 이전의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주령 이상된 포유자돈의 경우 10일령의 시기에 조기이유 후 전해질 제제와

보온 및 대용유 등을 통한 집중적인 관리로 생존율과 회복 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지만 모돈들에게 특히 분만사에서 설사병을 경험한 모돈의 경우 재발이 증가하고 발정 지연의 모습이 크게 눈에 띈다. 이는 10개월 후의 출하두수에 다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재발율은 30% 이상이 되므로 교배 복수를 맞추는 문제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돈의 도태를 절대적으로 줄이며, 가급적 많은 교배두수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들 이유 모돈들에게는 모돈이 배란을 위해 요구되는 영양소의 섭취를 증가하기 위해 이유시 사료 절식을 중지하고 충분한 양의 포유돈 사료의 급여와 비타민 C 및 바이오친, 비타민 E의 추가 제공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웅돈을 위해서는 비타민

C의 공급이 정자의 형성에 많은 도움(표1)을 준다.

넷째, 농장의 설사병의 상재화를 막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순환을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면역되지 않은 감수성 돈군의 유입을 약 3개월(최소 40일 이상)간 유예하거나 한꺼번에 도입하여 미리 면역을 시키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임상증상이 끝나면 분만사와 임신사 모두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 청소와 수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소독제로는 버콘S, 요오드 또는 4급암모늄계 등이 권장된다. 현실적으로 후보돈 수용이 어려우면 자체 선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일시적인 방법이기도 하나 당장에 후보돈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경제적 곤란에 대처하며, 새로운 돈군의 유입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순환을 막는 방법이 된다.

다섯째, 새가 돈사에 들어오거나 쥐의 존재와 같은 다른 동물을 근본적으로 농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새가 모일 수 있는 사료의 허실이나 바닥에 흘리는 것 등을 막고 정기적인 구서를 실시한다. **양돈**

<표 1>

	임신돈	포유돈	웅돈
비타민 E	산자수 증가(44ppm)	무유증, 유방염, 자궁 내막염 감소(66ppm)	
비타민 C(300mgAA/두/일)	여름철 수태율 증가		정자의 생성에 영향을 주어 여름철 수태율 증가
바이오친(220-550ppb)	수태율, 산자수 향상	이유후 발정재귀일 향상	